

하이닉스, 영업실적 개선 “확실”

D램 가격상승에 반도체 구조조정으로 ... 2012년 흑자 9000억원대

하이닉스가 D램 가격 상승과 반도체 구조조정에 힘입어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증권업계가 3월5일 전망했다.

대우증권 송종호 연구원은 세계 D램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과점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D램 가격이 오르고 영업실적도 흑자로 전환돼 순수 메모리 생산기업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계열의 주가 상승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종호 연구원은 하이닉스의 2012년 1/4분기 매출이 2조4000억원, 영업적자는 1950억원으로 시장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우증권은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만2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진투자증권 이정 연구원도 하이닉스가 시장지배력 강화와 D램 가격 급등으로 2012년 영업실적이 급격히 개선돼 1/4분기 매출 2조3478억원, 영업적자 1936억원으로 예측했다.

유진투자증권은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만원에서 3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트레이드증권 오용태 연구원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4분기에 적자를 지속하지만 2/4분기에는 440억원으로 흑자 전환하고 2012년 전체로는 9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용태 연구원은 “하이닉스의 2/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고 2013년까지 수익성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05>